

지역 소식통

익산, 산불방지 특별대책  
유관기관 협의회

익산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위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익산시 산림과장 주재로 익산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육군 제7557부대, 육군 부사관학교, 육군 제9585부대, 익산시간여행축제 등 산불관련 유관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7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과 함께 유관기관 및 단체, 유관 부서별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동시다발성, 대형 산불 시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재확인했다.

익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올해 봄철은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산불 발생이 농사대발·대형화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익산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정영원기자

익산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익산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을 연중으로 받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최장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경찰서, 교통규제개선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불합리한 교통규제개선을 위한 2017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비교통과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미원로 창우정형외과 앞 신호기 신설 9건을 포함한 횡단보도 신설 7건, 중앙선 절선 4건, 생활도로구역 지정 등 총 24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미동동 종은교회 앞 중앙선 절선과 미원로 창우정형외과 신호기 신설 등은 변화된 교통량과 신설된 도로용량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정비 새롭게 출범

축제·관광 전문가 5명·문화·예술 시민토론단 등 13명 구성  
사무국 운영 시스템 구축·독창적 콘텐츠 발굴 논의 진행

군산시가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축제운영 시스템을 갖춰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행사장 안전과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 및 전략적 홍보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전년도 시간여행 축제 개

최최시가 등을 의결하고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축제운영 시스템을 갖춰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행사장 안전과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 및 전략적 홍보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전년도 시간여행 축제 개

최최시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전 부서가 축제의 추진 주체가 되는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인원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올해 시간여행축제가 문화·관광형 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대역사 시간여행의 주제와 부합한 독창적인 콘텐츠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입학식

국내·외 환경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제52기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입학식을 저녁 교내 송산기념관 3층 행정대학원 전용 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제51기 개강식과 함께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김도종 총장과 김진남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해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수강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1년 개설된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은 지금까지 수료생이 23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26년 동안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함으

로써 지역 최고의 관리자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리더십, 지역사회, 경영, 역사문화,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수강생들의 생활능력과 소용 공감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치사를 통해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동문 간 유대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고의 관리자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행정대학원은 우리 지역 넓게는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21세기 문화선도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원광의 인재로서 '도덕적 문화인인 사회지도자'로 거듭나 국가와 지역의 기(氣)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학년도 1학기 강사진은 김도종 총장과 김형태 한남대 총장, 김세철 중앙대 교수, 김광호 컴비메팅 연구원장, 이영석 총각대 대표, 고재운 경희대 교수, 강신장 KGM 세계경영연구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51기와 52기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시,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현안사업 '가속도'

군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단대로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문동신 시장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설득 해온 결과이다.

공단대로 확장공사는 시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남북로사거리~미장교 사이 700m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

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 개통이 예상되는 미장교 확장과 연계되어 차량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소용동~나운동~수송동으로 이어지는 지전거리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교통 불편 해소 및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써 공단대로 확장을 통한 수송~미장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인근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4월~11월까지 운영

군산시가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고 놀며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장 참여형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를 반영, 월별·계절별로 차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놀이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숲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무와 식물 살펴보기, 숲 속 곤충 관찰하기, 자연을 이용한 체험 놀이 등 어린이들의 오감발달을 위

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놀이교실 운영기간 동안 관내 5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3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강사인원과 수업횟수를 늘려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6~7세)생이다.

운영일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은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개 반을 운영하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차량 범도민 구매운동 추진

군산시, 도내 자치단체·대학 등 차량 전시투어 홍보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차량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벌고 나섰다.

군산시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일부터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도내 13개 자치단체 및 전북대학 등 5개 대학에 대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올 뉴 크루즈 및 올란도 차량 전시투어 홍보에 나서며 범도민 구매운동을 추진한다.

또 군산예술의전당과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주말마다 상설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지엠 생산차량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메이트와 이마트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시민홍보와 신차출고에 맞춰 집중 구매운동 캠페인을 벌여 전북지역 점유율 확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대표기업인 만큼 군산공장이 살아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범도민 구매 촉진운동에 도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박차'

군산시의 (사)블루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사업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공동 응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프로젝트, 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청소년 읍부조력,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

동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 2000만 원씩 2개 지역에 지원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